

## ‘학교 건설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학교건설 비용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건교부 - 교육부

지난 7월 5일 인천 서구문화회관에서 ‘학교 건설! 무엇으로 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교홍 의원이 참석해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에디터 | 하유정 · 사진 | 고하진



**국**회 교육위원회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경인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 남양주 갑 지역의 최재성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최재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콩나물 교실, 과대 학급을 시정하는 한편 충분한 규모의 학교와 교사층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고 이 자리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서둘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신설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공식석상에서 맞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발주체가 학교를 지어야 한다’(교육부)와 ‘현행대로 국가가 지어야 한다’(건교부)라는 논리싸움이 팽팽하고 치열했다. 학교가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법률상의 해석과 학교용지를 포함해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투입주체에 대해 건교부와 교육부가 이견을 재확인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교홍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박종두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장,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사가 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사회자인 김교홍 의원은 “국토법이 제대로 개정되면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며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는 사업시행자가 학교 설립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교수는 “그동안 학교가 공공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기부채납이 불가능했다”며 “앞으로 학교도 공공시설로 포함시켜 기반시설 부담금이 학교 설립에 사용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학교를 짓는 데 들어갈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의 기준을 제시했다. “취학률은 이미 100%나 달성했지만,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 재정은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후 학교를 개축하는 것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교육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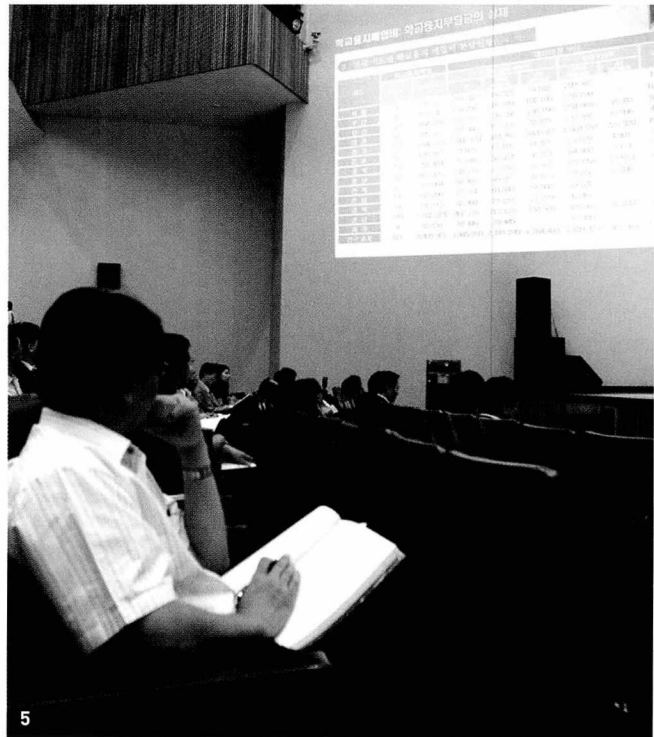
교육부 성삼제 담당관도 ‘국토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공공시설 순위를 재정립해 보면 학교가 도로, 공원, 수도 등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며 “현재 이 같은 의견에 사업 시행자와 각 부처끼리의 상호 협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박종두 팀장은 학교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개발로 인해 거둬들이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를 비롯해 교육세 등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제 등을 실시하면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설치를 강요하면 주택가격의 상승과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강운산 박사는 “현행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부담금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지방 교육재발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를 교육세로 바꿔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학계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2시간가량 열린 논쟁을 펼쳤으며 향후 건교부와 교육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것을 다짐했다. ㉞



1 인천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 학교 건설 비용 정책 토론회. 2 인사를 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 갑 지역 최재성 국회의원. 3 사회자인 교육위원회 소속 김교홍 국회의원. 4 토론자인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5 참석자들이 스크린을 통해 정책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 6 많은 사람들로 가득찬 학교 부지 건설 토론회.